

강진 전남음악창작소, 남도 K-콘텐츠 허브 자리매김

연 540건 대관·1만5천명 이용
전국 14개 창작소 중 실적 1위
체류형 캠프 등 관계인구 확대
AI·국악 융합 모델 경쟁력 강화

강진 전남음악창작소가 전국 최고 수준의 운영 실적을 달성하며 남도 K-콘텐츠 허브로 도약하는 핵심 문화 거점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19일 강진군문화관광재단에 따르면 전남음악창작소는 지난해 총 540건의 대관과 1만5천여 명의 이용객 수를 기록하며, 2025년 종합 운영 실적 평가에서 전국 14개 음악창작소 중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성과는 교육과 대관, 이용 활성화 등 핵심 지표에서 압도적인 실적을 거둔 결과로 전남 권역의 열악한 인프라를 보완하고 제작부터 유통, 공연, 교육까지 이어지는 지역 거점형 대중음악 생태계를 완벽하게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남도국립국악원 등이 활용하는 국악 레

코딩 허브이자, 청소년 음악 캠프, 산학 협력 기반의 인재 양성 등 문화·관광·복지·교육을 아우르는 복합 플랫폼으로 기능하며 수도권 편중 현상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역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는 든든한 전략 거점으로, 전남음악창작소는 문화예술을 매개로 외부 청소년과 예비 창작 인력을 지역으로 꾸준히 유입시키고 있다.

실제 최근 성황리에 운영한 '광주-강진 연계 청소년 1박2일 체류형 캠프'에서는 인공지능(AI) 작곡, 국악 합주, 스튜디오 녹음 등 다채로운 체험을 제공해 방문객들의 체류를 유도하고 관

계인구를 확충하는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했다.

앞으로 전남음악창작소는 전통 민요와 국악, 최첨단 AI 기술, 청년 뮤지션을 결합한 독창적인 크로스오버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해 전남형 음악 창작의 선순환 생태계를 완성할 방침이다.

음반 제작 지원부터 지역 대학과 연계한 라이즈(RISE) 협업 교육, 오디오북 제작, 관광형 공연 패키지 등 다각적인 특화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지역 음악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김기태 강진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이

번 전국 1위 성과는 지역에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음악 창작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는 무한한 가능성을 입증한 것"이라며 "강진의 풍부한 문화관광 자원과 전남음악창작소의 전문 인프라를 결합해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새로운 문화 정책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준 전남음악창작소장도 "문화예술은 사람을 지역으로 오게 하고 머물게 하는 가장 강력한 핵심 자산"이라며 "창작과 관광을 연결해 관계인구를 생활인구로 넓혀가는 탄탄한 기반을 끊임없이 다져가겠다"고 강조했다.

/강진=정영록 기자



영암군이 옛 대동공장 부지를 지역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재생 공사를 시작한다. 사진은 우승희 영암군수(사진 가운데)와 내빈들이 안전기원식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영암군 제공>

70년 방치 영암 '대동공장' 복합문화공간 재탄생

1만515㎡ 부지 226억 투입
문화·산업 융·복합 거점 조성

영암군은 70여년동안 방치됐던 옛 대동공장 부지를 주민과 관광객이 어우러지는 대규모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며 원도심 활성화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한다.

19일 영암군에 따르면 최근 영암읍 대동공장에서 문화재생사업 안전기원식을 열고 폐산업 시설을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의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본공사에 본격 돌입했다.

정미소와 양곡창고 등으로 변성했던 해당 부

지는 산업 구조 변화의 여파로 지난 1959년부터 오랜 기간 제 기능을 잃고 방치돼 왔다.

군은 공간이 품고 있는 목직한 시대적 경험과 역사적 장소성을 오롯이 살리면서 미래형 관광 거점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총사업비 226억원을 투입, 1만515㎡ 부지에 대대적인 재생 공사를 시작한다.

우선 올해 상반기 1단계 사업 준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며,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센터와 농가 레스토랑, 청년들의 발길을 이끌 수제 맥주 양조장을 비롯해 창작과 전시가 어우러지는 문화예술 아틀리에를 조성한다.

1단계 완공 직후에는 주민 참여 시범 프로그

램인 '쌔랑쌔랑 문화마당'을 선제적으로 운영해 공간 활성화의 확실한 마중물로 삼을 계획이다.

이어 2단계 사업을 통해 대동라운지와 교육 체험 공간, 메모리얼 거점 등을 순차적으로 확충해 문화와 산업이 융합된 완전한 복합 거점으로 완성해 나갈 방침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대동공장은 한때 영암의 산업과 경제를 상징하던 심장과도 같은 곳이었다"며 "새로운 시대에 발맞춰 국민의 일상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이자 영암읍 도약의 든든한 발판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 기자

함평군 국내 최대 '내나라 여행박람회' 참가

19-22일 서울 마곡 전시장서
나비대축제·캐릭터 굿즈 홍보

함평군은 국내 최대 규모의 여행 박람회에 참가해 사계절 관광 도시의 다채로운 매력을 전국에 알린다.

19일 함평군에 따르면 이날부터 22일까지 서울 코엑스 마곡 전시장과 마곡광장에서 열리는

'2026 내나라 여행박람회'에 참가해 지역 대표 관광 자원을 홍보한다.

군은 이번 박람회에서 4월24일 개막하는 '함평나비대축제'를 비롯해 자연생태공원, 돌머리 해수욕장 등 특색 있는 명소를 소개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관광 캐릭터인 '황박이'와 '뽀뽀'를 활용한 굿즈를 전면 배치해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함평=김영규 기자

목포시의사회, 통합 의료·돌봄 협력망 구축

복지부·시·보험공단 등 간담회
축약의사·방문진료 개선 논의

목포시의사회가 재택의료와 요양시설 의료 관리 체계의 사각지대를 진단하고 빈틈없는 지역 통합 돌봄 협력망을 선도적으로 구축하는 데 앞장선다.

19일 목포시의사회에 따르면 최근 목포시청 상황실에서 보건복지부, 목포시,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목포지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재택의료·요양시설 의료관리 현장 점검 및 정책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번 간담회는 현장 중심의 애로사항을 짚어 보고 기관 간 긴밀한 공조 체계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논의사항으로 요양시설 축약의사의 과도한 검지와 형식적 진료로 인한 다제약 관리 부실 우려가 도마 위에 올랐다.

참석자들은 무분별한 과다 지정을 막고 지

정 과정에 지역 의사회의 참여를 적극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어 방문진료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다년간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의료사고 대응을 위한 법적 안전망을 비롯해 간호조사 참여 보상 체계 보완, 취약계층 본인 부담금 지원 확대 등 다각적인 수가 개선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목포시는 이번 논의를 토대로 목포시의사회

와 재택진료, 돌봄 서비스 연계를 위한 선도적인 업무협약을 추진해 지역 의료 단체와의 굳건한 협력 기반을 다질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불거진 보험사기 사건을 계기로 사무장병원 등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행정조사 강화와 의료특별사법경찰 제도의 보완제도 함께 모색했다.

한편, 목포시의사회는 같은날 에메랄드웨딩홀에서 회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총회를 열고, 올해 주요 사업 계획을 확정함과 동시에 장학금 전달식을 가지며 지역 보건 의료 발전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다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완도군, 고금면에 LPG 배관망 구축 완료

76억 투입 393세대 연료비 절감

완도군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구축했다.

19일 완도군에 따르면 국·도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76억원을 투입해 2025년부터 고금면 소재지 4개 마을(농상·영부·석치·일덕암)을 대상으로 추진한 LPG 배관망 조성 사업을 마무리했다.

군은 각 마을에 5t 용량의 저장 탱크와 14km 길이의 지하 공급 배관을 설치하고 총 338세대의 가스보일러 교체와 가스 자동 차단 장치 등 안전 시설물을 설치했다.

이번 사업 준공은 농어촌 주민들의 연료 수급 불편을 크게 덜어주고 난방비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군은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7개 읍면 29개



마을(5천여세대)에 배관망을 구축했으며, 올해는 군의면 소재지와 3개 섬마을 등 340여세대를 대상으로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많은 읍면에서 배관망 구축을 희망하고 있는 만큼 예산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군민 누구나 공공 에너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금면 4개 마을 주민 대표들은 지난 12일 완도군청을 찾아 감사의 뜻을 담아 행복복지재단과 장보고장학재단에 각각 300만원을 기탁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나주시, 맞춤형 인구 대응...생애주기 과제 추진

청년 유출 방지·초고령사회 대비

나주시가 저출산과 고령화 등 급변하는 인구 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정주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기 위한 종합적인 지역 맞춤형 인구 정책을 본격 가동한다.

19일 나주시에 따르면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강상구 부시장 주재로 시의원과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인구정책위원회'를 열고 올해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시는 '과거와 미래가 동행하는 빛나는 포용의 도시, 나주'를 핵심 비전으로 삼고, 청년 인구 유출 방지와 초고령사회 대비 기반 확충을 위한 5대 분야 84개 세부 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무엇보다 출산부터 양육, 돌봄, 그리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밀착 지원을 한층 강화해 전 세대가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실제 지난해 말 기준 나주시 인구는 11만7천76명으로 전년 대비 422명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꾸준한 정주 여건 개선과 맞춤형 복지 정책들이 유기적으로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강상구 부시장은 "인구 변화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시기인 만큼, 위원회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치고 지역 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정준환 기자

해남군, 2026전남캠핑박람회 개최지 선정

10월9일 오시아노서...캠핑객 운집 기대

해남군이 전남도가 주관하는 '2026 전남캠핑관광 박람회' 개최지로 최종 선정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캠핑 명소로서의 확고한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19일 해남군에 따르면 이번 박람회는 오는 10월9일부터 11일까지 사흘 동안 화원면 오시아노 관광단지 일원에서 대대적으로 열린다.

지난 2022년 첫 개최를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4회째 박람회를 유치한 군은 국내의 80여개 캠핑 관련 기업을 초청해 다채로운 융복합 전시와 체험의 장을 마련한다.

특히 단순한 관람을 넘어 노지, 카라반 등 다양한 스타일의 캠핑객 900팀, 5천여명이 6만여㎡ 규모의 야외 잔디광장 등에 직접 머물며 즐기는 대규모 참여형 축제로 꾸며진다.

군은 참가자들이 지역 내 신선한 농수산물 직접 구매하는 '빈손 캠핑'을 적극 유도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소득 창출을 도울 예정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우수한 인프라와 성공적인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빈틈없는 준비에 나서겠다"며 "캠핑 산업이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 기자